

##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찾아서

- 재경부, KDI와 공동으로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 개최
-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 AI 대전환 시대 청년 고용 지원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신산업 인력양성 확대 필요성 강조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9일(목) 10:30 서울 은행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AI는 인간의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율화 단계로의 진입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도전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적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신산업 인력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KDI의 김세직 원장은 개회사에서 “AI는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조형 인적자본과 유연한 제도,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AI와 기본사회, 그리고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며 AI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AI 시대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삶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AI 시대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AI 기술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직무창출과 직무 간 이동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는 고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발표를 통해 AI 고용충격의 발생은 기술이 좌우하고 그 분배는 제도가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분배·거버넌스·역량진입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카나리아\*를 제도 안으로 들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청년 세대를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길은선 산업연구원 인구전략연구실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며, 청년 구직·채용 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참고 1) 행사개요

참고 2)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모두발언

참고 3) 발제자료 (별첨)

담당 부서 (주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 (고용서비스전략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044-215-8530)
		담당자	팀 장	송현정 (044-215-8540)
		담당자	사무관	류춘선 (yc91430605@korea.kr)
(협조)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실	담당자	실 장	정영호 (044-550-4655)

## 1. 행사개요

- (행사명) 「일의 미래 :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
- (일시) 2026. 7. 9.(목) 10:30 ~ 12:00
- (장소)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주최/주관) 재정경제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참석) 재경부·노동부, 연구기관 등 100명 내외

## 2. 행사 세부내용

구분	내용	
개회	(5분)	김세직 KDI 원장 환영사
	(5분)	재경부 이형일 차관 축사
	(5분)	노동부 권창준 차관 축사
	(15분)	경인사연 이한주 이사장 기조강연
기념촬영	(5분)	기념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발제	(30분)	① AI 시대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 (한요셉 KDI 연구위원) ② AI는 고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경험적 증거와 제도적 대응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25분)	(좌 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 길은선 산업연구원 인구전략연구실장
폐회	-	마무리 및 폐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차관 이형일입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세직 원장님과  
노동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분들,  
전문가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의 미래 :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AI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  
산재한 데이터의 축적과 융합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기술 진보는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과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나아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은  
AI 대전환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에이전틱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문제해결 수요가 있는 기업과 청년을 매칭하여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대전환으로 노동 안정성의 변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적 투자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신산업 인력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AI 대전환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AI로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기술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오늘 이 포럼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